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순례자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참회의 기도

(시편 6:1-10)

시편 6편 32, 38, 51, 102, 130, 143편과 함께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에 대해 어떤 사람은 슬픔의 시라고도 또 어떤 사람은 병중에서 쓴 시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1절).

이 말씀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시인의 육체적 질병은 죄책감으로부터 파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육체적 문제를 영적 슬픔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기도의 효험, 기도의 결론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학교로 인도합니다.

1. 참회의 기도 속에는 소망이 있다

시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과 진노 앞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먼저 자신의 죄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으로 착각을 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시인은 심한 절망에 빠진 나머지 잠을 잃어버렸습니다. 긴 밤을 탄식하여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은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회개의 깊은 정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절망은 다윗 뿐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겪은 바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가치를 의심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의 아내는 검정 옷을 입고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루터가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루터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2절).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 심한 근심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수척’이란 말은 영어로 faint라고 읽으며 졸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절망하여 뼈가 떨릴 정도라고 했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6절)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탄식이 너무 심하면 청소도 하기 싫고, 밖에도 나가기 싫고, 심지어는 밥도 먹기 싫어집니다. 더 심해지면 교회까지도 가기 싫어집니다. 이 때 기도를 한다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3절)라고 중얼거릴 것입니다. ‘Domine, usque quo’(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기도는 John Calvin이 좋아하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떠나셨다고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로를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와 상관없다고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시인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다윗은 1-4절에서 5번이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이 시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실패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시험에 처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고 구원을 빌어야 합니다.

2. 참회의 기도 속에 구원이 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

다윗은 행악자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도 자기 의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곤고한 중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으며”, ‘내 뼈가 떨리으며’,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시 103:14). 우리는 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애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나” (5절). ‘사망’은 2,3절에서 나타난 시인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 시 전체를 통해 불쌍하고 멸망 받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3. 참회의 기도 속에는 은혜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8-9절).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자신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4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 한 후 즉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나를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바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기도의 효험, 기도의 결론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학교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때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책감을 깊게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죄악에 대해 전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려면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으므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사랑 · 선교와 헌당을 위한 2005년 열린바자

· 일시: 9월7일(수) - 9일(금)
· 장소: 서울교회와 한티공원
(강남구 대치동 210)



노문환장로 (2005 바자 준비위원장)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한 2005 열린 바자가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각 가정마다 한 가지 이상 물품 기증하기, 한나절 이상 장터에서 봉사하기 그리고 한 가지 이상 물품 구매하기"입니다. 양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교회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교회에 다니신지 오래되신 분도,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아직 교회에 나와 보신 일이 없는 분도 오십시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다락방을 통하여 봉사와 섬김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친지와 이웃들도 많이 초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명절을 앞에 두고 열리는 서울교회 2005 열린 바자에 성도 여러분과 이웃 주민 여러분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초대 합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알찬 바자가 되기를 소원 합니다.



각종



스포츠 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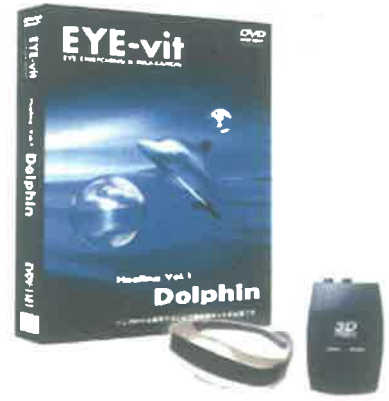
곡류, 고추, 고추가루, 깨



건어물



김치, 젓갈, 밀반찬류



각종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아이빃(계동사 시력 교정기구)



남여 잡화, 약세서리(이미지 사진입니다)

여성의류(이미지 사진입니다)



각종 과일

정육, 사골



각종 먹거리 (추어탕, 육개장, 녹두빈대떡, 떡볶이, 비빔밥, 도토리묵...)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 28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1주일 앞으로

9월5일(월)부터 각 과정별로 일제히 개강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및 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9월5일(월)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교회는 개강일정에 맞춰 성도들의 수강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 주 주보에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안내 팸플릿을,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수강신청서를 삽지로 넣었다.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좋은 강의도 듣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서울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열린프로그램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천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하는 서울교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한 전국 각지의 많은 목회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는 목회자세미나 28학기 과정도 같은 날 개강한다.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갱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

2005 열린바자 판매장소 추첨

오늘 3부 예매 후 101호실에서

2005 열린바자에 참여하는 각 교구에서 판매할 장소 추첨이 오늘 3부 예매 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금번 바자는 오늘 판매장소 추첨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해를 누리고 있는 열린바자는 오는 11월27일 헌당을 앞두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차게 준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바자를 통해 명절을 앞둔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서로에게 덕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찬양대양성반 다음 주 개강

9월 4일(주)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10학기 찬양대양성반이 다음주 9월 4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1호에서 개강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 하고자 하는 성도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7주의 교육을 받은 후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다.

찬양대양성반은 운영국 목사의 영성훈련과, 박정선 장로의 지도로 발성법, 호흡법, 악보 보는 법, 음악의 이론 등 찬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초부터 알기 쉽게 배우게 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1일(수) 부터 이불간 대전신학대학 '05추계사경회를 인도한다.

■ 주간식당 봉사: 마리아전도회(8월28일)에스터전도회(9월4일)

■ 금주의 식사: 서한석 집사 김준자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천국시민양성

대학부 성경통독수련회를 마치고

최진경 (대학부 총무)

여름방학이 끝나갈 즈음이 되면 대학생들의 마음은 헤이해지기 쉽습니다. 몸과 마음은 더운 날씨에 지쳐있고, 새로운 학기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기 위해 대학부는 작년에 이어 신약 성경통독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저에게도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몇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매번 거절당하기 일 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친구에게 함께 교회에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안 된다며 다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제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성경통독에 참여하여 성경을 읽던 중,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지친 제 영혼에 강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

르지만 친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힘쓰고 또 힘쓰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을 통독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와 기도의 중대하고도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캠퍼스에 나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 것을 다짐해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도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승리하는 대학부가 되겠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체 하소서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예매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20분
	3부 오후 2시
찬양예매	주일 오후 5시
영예매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매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교회외시는 길

